

몇년 전 함부르크와 라이프치히에서 책을 낭독한 소설가 신경숙은 한 잡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생소한 일이다. 그저 한 사람의 작가인 내 입장으로 생각해보도 내가 쓴 소설을 청중들을 상대로 낭독한다는 일은 참 멋지게 느껴진다. 시도 아니고 소설을 낭독한다구? 하는 게 아마 전반적인 우리나라 작가들과 독자들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다. (...) 어떻게 생각하면 낭독회라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일 같은데도 그 열기가 대단해서 참 놀라웠다. 문학의 어떤 뿌리를 본 느낌이었고 고나 할까. 나는 여전히 내가 쓴 소설을 청중들 앞에서 낭독하는 일을 어색해할 터이지만 라이프치히에서의 낭독회 풍경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시·소설 등 장르 상관없이 작가가 직접 낭독해**

도시가 책을 읽는다. 라이프치히가 읽고, 뮌헨이 읽으며, 베를린이 읽고 이제 쾰른이 책을 읽는다. 온통 책을 읽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이다. 라이프치히에서는 봄 도서전과 함께 ‘라이프치히는 읽는다’는 행사를 연다. 이때는 대략 나흘 동안 8백여 차례의 낭독회가 열린다. 소설, 시, 동화, 수필과 생활지침서 등 모든 분야의 책들을 작가가 직접 나와서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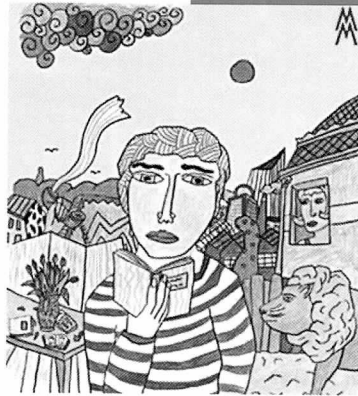
지난해부터는 쾰른도 책을 읽고 있다. ‘문학, 쾰른’이라는 모토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열린 이 행사에는 전세계에서 1백여명의 작가와 배우, 가수가 모여들었고 이들이 꾸려낸 행사는 모두 73개. 여기에는 약 6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보조비는 약 10%고 대부분의 수입원은 청중들이 내는 입장료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쾰른을 문학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한다. ‘칸느’ 하면 ‘영화제’가 떠오르듯, ‘쾰른’이라면 ‘문학낭독회’

# 세계적 축제로 자리잡은 독일 도시들의 낭독회 열풍

라이프치히, 뮌헨, 쾰른 등 앞다퉈 낭독회 개최해

이정모 | 유로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사진은 라이프치히는 읽는다'의 행사 포스터.

가 저절로 연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주최측이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마련한 테마는 ‘섹스’와 ‘요리’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우리에게

게도 잘 알려진 카트린 밀레. 그녀는 자신의 책 《카트린 M의 성생활》(열린책들)을 낭독하고 독자들과 토론했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만화주인공을 모티프로 한 축제들이 열렸다. 아이들은 축제에 참가해 신나게 놀다가 자연스럽게 작가의 낭독에 빠져든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인 WDR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책에 따라 다양한 낭독회장 이용해**

문학낭독회는 강당에서만 열리지 않는다. 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장소가 이용된다. 법정소설을 위해서는 쾰른의 고등법원이 낭독 장소로 제공되고, 아동문학 작가들은 초등학교 교실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며 박물관과 기차역, 극장, 교회 그리고 카페와 음식점도 애용된다. 페르 아우구스틴스키가 《정글북》을 낭독한 곳은 쾰른의 동물원이었으며 뉴욕에서 온 요리사가 자신의 책을 낭독하고 요리도 직접 시연해 보인 곳은 한 대형 호텔의 주방이었다.

독일의 문학낭독회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영화를 관람할 때 관람비를 내듯이 돈을 내고 표를 끊고서 낭독회장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보통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성인 프로그램의 입장료는 우리 돈으로 약 1만5천원 정도로 극장표의 2배에 해당한다. 각 프로그램에는 평균 5백명 정도의 청중이 입장한다.

쾰른은 친구들과 함께 16일 저녁 8시, 제일 큰 극장에서 열린 이스라엘 작가 켄투야 샬레브의 낭독회에 갔다. 2천석 정도의 자리가 꽉 차서 바닥에 앉아서 보고 들어야 했다. 무대는 마치 연극과 같은 분위기로 꾸며졌다(책을 낭독할 때도 조명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중들은 20대 대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것 같았다. 같은 책을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같은 눈과 귀로 읽고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중들은 외국 작가를 대신한 인기 여배우의 낭독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물론 소설책을 다 읽지는 못한다. 아주 적은 분량만 낭독한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이미 그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또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청중들은 작가의 사인을 받으면서 몇 마디씩이라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는 것에 흡족해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청중들과 함께 카페에서 왈카하게 열심히 말하고 마시는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